

Tim Gombis 박사 , 갈라디아서, 세션 4, 갈라디아서 2:11-21

© 2024 팀 고펜스 (Tim Gombis)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Tim Gombis 박사입니다 . 이것은 갈라디아서 2:11-21의 네 번째 세션입니다.

갈라디아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다루겠습니다.

첫째, 11~14절에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의 대결을 이야기하고, 다음 15~21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깊은 논리를 파헤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한 논쟁이며, 실제로 그가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라디아의 모든 청중과 논쟁하고 싶은 논리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상황, 즉 안디옥에서의 베드로의 대결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곳 갈라디아의 전체 청중의 대결의 본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그는 두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융합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가 실제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한 연설의 일부였는지, 즉 베드로와 대결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 말은, 이것은 아마도 그가 안디옥에서 말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목적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바울의 동시대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해해야 할 신학적 , 신학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다민족 하나님 가족의 충만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 바울의 논증의 본질을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11절 1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와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하며 11절에서 말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니 이는 그의 아람어 이름이니라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적하였노라 그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드로가 왜 그곳으로 안디옥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당신을 확인하고 당신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방문이지만 Paul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혼합 인종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단일체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복음의 논리를 따라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인 유대인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을 만나도록 이끌렸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신학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신학적인 교훈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는데, 바울은 그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터는 무엇을 했나요? 글썄,

바울은 여기 12절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가 모였을 때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주의 만찬, 즉 애찬을 위해 함께 모였고, 교회로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었고,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코셔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식인 코셔 음식을 먹었을 것 같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인데, 이는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물려받은 견해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조치였습니다. 피터는 참고한다. 제가 여기에 그 구절을 적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백부장에게 한 연설에서 백부장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이 위법한 줄을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을 실제로 금지한 것이 토라로 간주되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안디옥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한 새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교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동안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었더니 야고보에게 속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오매 그가 할레당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며 멀리하기 시작하더라.

즉,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등 기본적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는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자

베드로는 겁이 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그만두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베드로의 행동의 결과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도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민족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속한 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여 저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너.

그러므로 이것은 사회적 행동이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매우 비슷한 일이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동일한 기본 추진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고린도의 애찬식에서 가난한 자들을 쫓아내고 바울은 그들이 기독교적 정체성과 기독교 사회를 구현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직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서 수치심을 주는 것은 공동체의 정당한 일입니다. 본질적인 메시지는 당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보다 더 많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베드로의 위선 행위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끌려갔으니 바울이 그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왜 위선입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이미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혼혈 공동체의 한 부분이자 완전한 참여자였습니다. 피터는 더 잘 알고 있다.

방금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자신이 배운 신학적인 교훈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잘 알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은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범법적이라고 느끼며 실제로 죄인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수수께끼에서 구출할 것인가?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 곤경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갈라디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복음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은 실제로 서로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한 연설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위해 전개했을 신학이며 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무거운 신학적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바울의 신학적 문제를 많이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과 바울 신학에서 이러한 주요 주석적 문제 몇 가지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칭의가 나오는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칭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화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칭의에 관해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종교 개혁 유산에서 나오는 칭의를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는 시점에 의롭다 함을 얻거나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정당화와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개념입니다. 큰 개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던 칠판에 이 도표를 올려 놓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 구원에 대한 일종의 이미 구성 요소가 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구원. 정당화에 관해 말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당화가 이미 그것에 참여하지만 아직 역동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기 백성에게 내리실 종말론적인 판결이다.

좋아요. 정당화는 미래의 현실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의의 소망이나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래에 일어날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바울 신학의 핵심 구성 요소는 그리스도의 미래의 날이 이미 현재를 압박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 시대의 교회와 신자와 교회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합체로 생각해 보면,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 바울은 너희가 말세를 만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정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만 그 판결은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날을 예상하여 내린 판결이며, 그 판결은 온 우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므로 칭의에 관해 우리가 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것이 현재의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미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가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종말론적인 것, 즉

결국 사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 슬래시 정당화 언어의 추가 측면은 동일한 단어 그룹입니다. 이것의 일부인 또 다른 문제는 정당화가 바로잡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잡음, 즉 이전 세대의 신학자들이 그러한 정당화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단지 천국에서 울리는 법적 허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칭의가 바로잡혀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즉 권리를 만드는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당화에는 변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바울이 자신의 논증을 전개하는 방법과 가장 관련이 있는 측면 중 하나는 칭의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의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무엇인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의롭다 칭하실 사람들의 무리는 무엇인지 답해 줍니다. 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1세기의 다양한 유대인 집단은 이 질문에 다르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사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해석상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소망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상황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 선교사들이 갈라디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요, 마지막 날에 소망을 갖고 의롭다 함을 얻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유대인 보라. 유대인들도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울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걸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화는 복잡한 현실이고,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15절에서 21절까지 전개되는 바울의 주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해석상의 쟁점은 바울이 이 표현으로 의미하는 바가 율법의 행위인가? 이 표현은 바울이 16절에서 세 번 사용한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해석적 문제 전체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전 세대의 바울 학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개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 없는 복음을 선포한 반면, 유대교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바울은 그것이 행함이나 성취나 축적이나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행위, 즉 사람이 마지막 날에 칭의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청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주의의 행위에 반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율법주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토라를 중심으로 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람이 행하는 행위의 종류입니다.

안식일 준수, 음식 준비 시 음식법 준수, 할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수많은 다른 행위를 의미하는 행위 등이 합쳐져 유대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유대인으로 표시하거나 자신을 유대인으로 표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해주는 행위와 그 개념은 큰 장점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문맥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종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에서 그는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중에 죄인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칭의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칭의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해석적 문제는 법률 행위가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종교인 유대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세 번째 해석적 문제(이것이 다시 얽혀 있습니다)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16절과 그 이상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중 일부를 제거하겠다는 헬라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어 표현인 *Pistis Jesou Christou*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영어 성경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객관적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는 데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번역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 많은 해석자들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소유격이고 신앙과 관련이 있으며 로마서를 읽는 데 익숙하다면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나타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욱이 피스티스는 신실함, 신실함, 충실함, 충성심, 신뢰 등과 같은 것으로 번역되거나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위를 반드시 대조하지 않습니다. 대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함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어떤 것과 더 관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칭의에 관한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들은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과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칭의와 관련이 있는지, 아마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 이것은 지난 30, 40년 정도에 걸쳐 바울 신학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종종 *New Perspective* 종류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 논쟁과 관련하여 선이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뚜렷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 중 하나 또는 내 자신의 이해를 포착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는 *Morne Hooker*가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 표현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나타내는 기사를 썼습니다.

내 말은,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 모호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대한 신실하심과

그가 행하신 삶,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순종의 사명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의를 풀어주시는 수단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특히 20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둘러싸여 있음을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표현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예수의 신실함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실제로 아버지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그 방식과 그 신실함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는 일종의 모형으로 포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뛰어들어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는 현실의 영역도 포착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삶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신실한 삶을 본받을 때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나요? 그게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종의 양자택일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오는 칭의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실제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템플릿이 되는 참여 차원도 좋아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신실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해석적 문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5-21절을 살펴보면서 여러 지점에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갈라디아서 2장 15-21절은 실제로 이 편지의 신학적 핵심이자 무엇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그는 청중과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잃지 않고 어느 정도 다루었으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전략은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와 바나바를 모두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5-21절에 나오는 신학적 메시지가 바로 그가 그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바울,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갈라디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공유한다고 가정할 합의된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공유합니다... 15절과 16절은 기본적으로 바울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곧 너 베드로와 바나바와 나 바울과 나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중에 죄인이 아니니라. 그리고 폴이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약간 불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암묵적인 개념을 끌어내고 이를 명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세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보는 방식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는 유대인을 바울과 같게 만들고, 베드로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들은 이방인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와 베드로와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거니와 너희와 내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베드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근거 또는 기초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근거 또는 기초는 우리의 유대인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련, 그런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 16절의 두 줄 중 첫 번째 종류에서 그가 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 죄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의 유대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는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대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Peter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논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유대인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었거나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15절과 16절의 논리와 비슷하며,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그 논리를 고통스럽게 길게 끌어내어 유대 기독교,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인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갈라디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요점은 지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기초 위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런 다음 바울은 베드로의 어려움을 분리하고 명시합니다. 이는 바나바의 어려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의 어려움, 갈라디아의 선동자들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이냐? 아니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칭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머지 인류 옆에 두는 것이 우리를 이 모든 죄인 옆에 포함시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죄, 즉 우주적 죄의 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즉, 15절과 16절의 논리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바울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당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칭의가 필요한 모든 이방인 죄인들 옆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죄와 동맹을 맺고 계십니까?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결론이군요.

터무니없는 결론이군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베드로와 바나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시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이 신학적 논리를 펼치고 두 가지 정교함을 통해 그것을 전개할 것입니다. 18절에 하나, 19절과 20절에 하나.

그리고 둘 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멋진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2개의 4가 있습니다. 실례지만, 바울의 두 가지 정교함을 시작하는 두 개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제시하는 첫 번째 내용은 18절에 있는데, 이것은 아주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아주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복잡할 때마다 그려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에 논리로 그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베드로.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판명되리라.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스스로 범법자임을 증명하리로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선동자들도 그들이 이방인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불결한, 그 두려움에 이끌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에 그들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18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베드로, 선동가, 예루살렘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유대 기독교를 당신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행한다면 당신은 죄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는 범법자가 된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압적인 죄인이 됩니다. 자,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율법 자체를 말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반드시 이것을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들이 법을 요새로 이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도 이것을 인용부호로 넣을 것입니다: 율법.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공식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일종의 요새처럼 기능하여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이방인 죄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전에 율법 안에서 이방 죄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기본적으로 성 안에 머물며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민족, 다국적의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요새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마도 십자가를 완전히 바깥에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일은 그가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요새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터도 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저 이방 죄인 가운데 있는 곳,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유대인, 이방인 죄인, 모두가 하나의 행복한 가족입니다.

자,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이 이방인 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새 안에 머물고 있고 바울은 이것이 당신에게 훨씬 더 나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왜 그것이 당신을 범법자로 만드는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왔다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랬어, 피터. 당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로 나갔다면, 나를 이 경계 안에 가둬두었던 것이 허물어져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허물었다가 다시 짓는다면 나는 범법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난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긴 나와 너야, 피터.

이것은 나와 당신입니다. 지금 말하면, 여기 밖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요새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썄요, 나는 이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은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활 방식으로 이방인과 함께 밖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과 함께 밖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미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선을 넘어서는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은 유대교 정체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있고, 이방인 가운데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논리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나는 안다.

만일 여러분이 돌아가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멀리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범법자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사실, 당신이 하는 일을 하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피터.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은 왜 실제로 죄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설명할 것인데, 그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그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체 구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본

논리를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4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바울이 여전히 같은 개념, 즉 율법을 범법하는 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요새로 보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과 속죄될 수 있는 일상적인 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범법자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요새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메커니즘을 통해, 율법을 통해, 율법 자체의 메커니즘을 통해 내가 실제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낡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실제로 이 요새를 떠나 나가서 이방인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대교 버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이곳으로 나오게 하는 신학은 죄인들과의 교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Paul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계도 범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꼬리표를 부여하는 이 현실을 따르지 않으며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19절로 돌아가서,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이 다국적, 다민족 공동체, 이 다민족 가족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에 바울이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 자체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 독점적인 요새에서 벗어나 이제 이방인들과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20절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라 즉, 그것은 더 이상 바울과 그의 모든 업적, 그리고 그가 토라에 기초한 문화에서 구축한 사회적 지위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나는 동료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유대 문화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의 신실하심으로 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강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경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떠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이 두 가지 요소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궤적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논리가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요새 같은 구조에서 나가는 방법은 그것을 떠나는 것이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돌아가면 우리는 현재의 악한 시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제의 영역이다. 죄인을 쫓아내는 영역입니다. 이는 남들보다 나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식별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식별하고 오염되었거나 악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식별합니다. 그것은 모두 타락한 우주권, 현 악시대의 행위, 태도, 행동, 사회 역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사랑, 자기 증여, 포용을 지향하는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을 취하는 새 창조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유대인, 그리스인입니다. 내 말은, 그리스도 안에는 포용적인 태도와 행동의 근본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 어떤 것보다 덜 가치 있는 죄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새 가족의 형제자매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유대교의 정화를 위해 노력했던 역동성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격한 외출이 일어나서 이전에는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이자 공동체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신학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영역이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내려가고 갈라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멸망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새로운 창조로 들어갈 영역입니다.

이는 21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잡음과 칭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잡힌 영역,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영역이며, 바울이 말한 21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내 생각에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현실, 새 창조, 교정의 영역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는 것은, 만약 다른 방법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오직 십자가만이 이것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율법에 의해, 유대인의 정체성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면, 또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그것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게 보낸 것은 터무니없이 잔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실재가 창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Paul은 실제로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계획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종의 영적인 삶, 영적인 자기 존중에 관한 개념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의 영성의 거짓된 종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말,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연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의 영성을 지배해야 하는 종류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개인으로서 내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잘못 구성된 자아와 내가 생각했던 자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고, 내 문화가 나에게 누구라고 말했는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아는 죽었습니다. 남을 배제한 나, 남을 학대한 나, 남을 강요한 나, 남에게 권력을 추구한 나, 그 자아는 죽은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폐지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나는 마침내 내가 된 사람이 됩니다.

나는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된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의 신실하심에 흡수되어 나를 최종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모든 기술과 능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정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내가 교회에서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지위도, 그 어떤 것도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타락한 개념에 따르면 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야 하고, 감독이 되어야 하고,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때가 내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은 세상이군요. 그리고 나는 추종자가 될 수도 있고 참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무언가를 감독할 수도 있지만 명령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된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내가 된다. 나는 잔디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들을 수 있다.

기능에 관한 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집에서 전환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종이 될수록,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참여할수록, 그러한 행동이 내 집에 부활의 임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나는 때때로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교수진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내가 진실로, 온전하게, 마침내 내가 되는 것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희망과 약속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대화, 관계의 역동성,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 그리고 공동체로서 교회가 더 넓은 문화에 대해 취하는 자세와 관련하여 십자가의 모양을 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고, 권력 추구, 강압, 권력 장악을 포기하고, 환대 봉사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행동을 구체화하는 것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취소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없애고, 바울처럼 나의 몸, 나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내 몸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소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유가 어떻게 온전히 거주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해방시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베드로와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펼치는 신학적 논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거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다국적 민족을 만드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가져오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편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나머지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르친 Tim Gambas 박사입니다. 갈라디아서 2:11-21의 4 회기입니다.